◆ 폐회찬송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 축도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6년 11월 15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11월 예배찬양,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낭독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 Pslams 104 (Cev)

With all my heart I praise the LORD, and with all that
I am I praise his holy name! With all my heart I praise the LORD!
I will never forget how kind he has been.
The LORD forgives our sins, heals us when we are sick,
and protects us from death.
His kindness and love are a crown on our heads.
Each day that we live, he provides for our needs
and gives us the strength of a young eagle. The LORD is merciful!
He is kind and patient, and his love never fails.

9. 결단의 찬양, '누군가 널 위하여'



◆ 교회소식

1. 11월 교회일정
   * 28일(토) 11월 가족모임, * 29일(주) 대강절 첫 주일 / 성찬식
2. 16일(월) 출국하시는 장 선교사님의 건강/가정/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3. 기도제목 나눔
   *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 일) 조영상 선교사님의 3차 가정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

8. 오늘의 말씀 : '하나님의 배려!'

◆ 누가복음 13장 6-9절

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 **Luke 13:6-9** (Niv)

6. Jesus then told them this story:
A man had a fig tree growing in his vineyard.
One day he went out to pick some figs, but he didn't find any.
7. So he said to the gardener,
"For three years I have come looking for figs on this tree,
and **I haven't found any yet. Chop it down!**
Why should it take up space?"
8. The gardener answered, "**Master, leave it for another year**.
I'll dig around it and put some manure on it to make it grow.
9. Maybe it will have figs on it next year.
If it doesn't, you can have it cut down."
(Amen)



The LORD won't always be angry and point out our sins;
he doesn't punish us as our sins deserve.
How great is God's love for all who worship him?
Greater than the distance between heaven and earth!
How far has the LORD taken our sins from us?
Farther than the distance from east to west!
Just as parents are kind to their children,
the LORD is kind to all who worship him,
because he knows we are made of dust. (Amen)

4. 찬양, '목 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5. 찬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6.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7. 함께 기도

1. 어수선한 국제 정세와 다양한 사회 갈등, 불안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 하거나 염려/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범사에 감사/찬송하며 살기를..
2.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폭력을 주께서 멈추어 주시길...
3.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가정/사역을 위해...
   * 러) 장 선교사님 16일 출국 준비를 위해
   * 일) 조 선교사님 12월 3차 가정교회 개척사역이 잘 진행되기를
4.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귀한 결단과 삶의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